

강증산(姜甌山)의 해원사상에 대한 이해

- 영화 <화평의 길>(1984)을 중심으로 -

안 신

배재대학교 · 교수

- I. 서론: 영화로 행동하는 종교 III. <화평의 길>에 대한 종교학적 평가
II. <화평의 길>의 구조와 내용 IV. 결론: 영화를 통한 해원사상 함양교육

I. 서론: 영화로 행동하는 종교

종교는 신화적, 의례적, 철학적, 경험적, 윤리적, 사회적, 예술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¹⁾ 종교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appearing) 이러한 드러남은 신자와 비신자에게 종교에 대한 주요 개념과 세계관을 선언한다.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종교사상은 영화의 스토리와 인물의 이미지로 새롭게 재해석됨으로써 세계관과 가치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성스러운 경전이 담고 있는 콘텐츠는 영화의 매체에 담겨지면서 그 자체가 종교공동체의 집단담론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세계관을 구성하는 언어가 문법의 세계를 만들고 그러한

1) Ninian Smart, *Dimensions of the Sacred: An Anatomy of the World's Beliefs*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6), pp.10-11. 종교학자 스마트는 종교의 예술적 차원을 강조하며 건축물, 예술작품, 문학 등의 사례들을 언급한다.

가상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공동체의 진리가 된다.²⁾ 철학자 윌터스토프(N. Wolterstorff)는 예술이 단순한 심미적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영화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를 설득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³⁾ 따라서 종교영화의 메시지는 종교공동체의 효과적인 교화와 포덕의 매체로 활용되며 관객의 세계관에 종교적 변혁(religious transformation)을 일으킨다.⁴⁾

21세기 한국문화는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크게 증가됐고 종교적 상상력이 담겨진 영화들이 연이어 제작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밀양>(2007), <박쥐>(2009), <밍크코트>(2011), <설국열차>(2013)는 인간의 원초적 고통의 문제와 용서 그리고 희생의 종교적 주제를 담아 독특한 구원론을 한국인과 세계인에게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영화사에 민족종교의 창시자의 삶과 사상을 그린 작품들도 있다. 임권택의 <개벽>(1991)과 박영철의 <동학, 수운 최계우>(2011)는 천도교(동학)의 세계관을 다루었고, 강대진의 <화평의 길>⁵⁾(1984)은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의 일대기와 사상을 담고 있다. 오늘날 종교는 영화를 통하여 행동하

2) George A.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pp.32-35.

3) Nicholas Wolterstorff, *Art in Action* (Grand Rapids: WEPC, 1980), pp.12-18.

4) John C. Lyden, *Film as Religion: Myths, Morals, and Ritual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pp.32-35. 라이덴은 영화에 대한 신학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며 종교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5) 영화 <화평의 길>은 신현영화주식회사의 작품으로 김태원(총지휘), 김정조(기획), 김태원(원안), 이형우(각본), 정운교(촬영), 최의정(조명), 김영동(음악), 손인호(녹음), 이재희(효과), 박순덕(편집), 서홍익(스킬), 영화관광공사현상실(현상), 김성배(미술), 이대호(소품), 이해운(의상), 송일근(분장), 편주희(미용), 김철석(특수효과), 성광제·이석현(촬영보), 배상용·민성렬(조명보), 김상현(조감독), 이슬원(기록), 원수남·심승룡(제작부장), 진운, 이순재, 김진구·한은진(특별출연), 김해숙, 제갈숙, 진숙, 심정수, 김운하, 조용수, 김민규, 이지산, 김정철, 여재하, 심상천, 최성관, 김기중, 회석, 박암, 추봉, 정영국, 한다영, 신찬일, 김하림, 박용호, 권혁진, 이예성, 문태신, 최재호, 지용남, 임해림, 사원배, 안용환, 김태용, 신양균, 최성, 최일, 채훈, 김석훈, 김필성, 김기범, 최성호, 추석양, 윤일주, 임성호, 마도식, 유병순, 임생출, 박부양, 이정애, 정도환(제작), 강대진(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다.

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강증산의 파란만장한 삶과 해원(解冤)사상이 영화의 스크린 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종교현상학의 판단정지(epoche)와 공감(empathy)의 방법으로 검토할 것이다. 종교현상학자 반 텔 레에우(G. van der Leeuw)는 종교현상학의 서술문법을 설명하였는데, ① 어떤 것이 현존하고, ② 그 현존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③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타남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그림 1〉 영화 <화평의 길> 전단지
 것이므로 현상은 ‘주체와 관련된 객체’이고 ‘객체와 관련된 주체’인 것이다. 현상과 만나는 주체의 경험, 이해, 증언으로 은폐된 현상성이 점진적으로 드러나 투명해 지는 것이다.⁶⁾ 진위를 밝히기보다는 공감하는 태도⁷⁾를 가지고 대순진리회의 경전 『전경(典經)』이 <화평의 길>의 스크린 위에 구현되는 방식과 해석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강증산을 소재로 한 강대진의 영화를 구체적 사례로서 분석하여 해원사상의 구조와 특징을 탐색할 것이다. 분석을 토대로 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과 시민을 위한 종교교양(religious literacy)⁸⁾을 함양시키는 영화를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과 추후 제작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6) 정진홍,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종교현상학의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p.122-129.

7) Ninian Smart,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in its Plurality”, Frank Whaling, ed., *Theory and Method in Religious Studies* (Berlin: Mouton de Gruyter, 1995), pp.181-183. 종교학자 스마트는 “어떤 사람의 모카신을 신고 일 마일을 걷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결코 판단하지 말라.”는 북미인디언의 격언이 공감적 이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8) 현대사회의 종교문맹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교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Stephen Prothero, *Religious Literacy* (New York: HarperOne, 2007), pp.13-20; Diane Moore,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p.27-28.

II. <화평의 길>의 구조와 내용

소설에서 그려진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강증산의 다양한 이미지는 영화에서 보다 극적으로 표현된다. 상영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과 신비의 사례들도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순진리회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의 제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전 박우당이 이형우 작가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감수했고 증산과 정산의 배역을 정하였으며 단역에도 다수의 도인들이 참석했다.⁹⁾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 <화평(和平)의 길>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상제 강증산(姜甌山, 1871-1909)에서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1895-1958)¹⁰⁾으로 이어지는 대순진리회의 도통계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 『신인 강증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영화의 전후를 감싸는 외부이야기는 조정산(이순재 분)의 삶과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 내부이야기는 강증산(전운 분)의 일대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후반부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 신화의 영웅처럼 혼란한 세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선각자로서 강증산과 조정산 양산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소식이 조정산의 가정에 알려지면서 시작한다.

영화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1984년 영화계의 분위기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해 2월에 전두환 대통령은 영화예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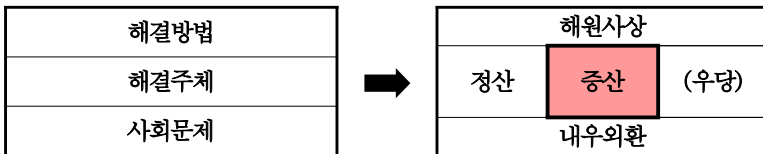
9) 신상미, 「영화 “평화의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대순회보』 140 (2013), pp.44-53.

10) 조정산의 이름은 철제로 부친을 따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후 강증산의 종통을 이어 태극도를 설립하고 증산의 가르침을 전했다. 본 논문에서는 조철제는 조정산으로 칭할 것이다.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회 공인추천작품으로 변기영 신부의 고증과 김남수 주교의 추천을 받았다.¹⁵⁾ 이밖에도 신부를 짝사랑하는 파계수녀의 이야기를 다룬 김현명 감독의 <아가다> 등이 있다. 이러한 영화계의 상황에서 개봉된 영화 <화평의 길>에 대하여 영화진흥공사는 작품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증산이 서거한 뒤 그를 신격화한 중도들이 증산의 행적과 사상을 [모아] 증산사상을 신앙화했고, 그 교세가 크게 떨쳤으나 이대 도주 조정산 때 왜(倭)의 대동아전쟁 과정에서 이 민족종교는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해방 후 그의 교리는 다시 연연히 이어져서 민족의 정신도량 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¹⁶⁾

1984년 서울 개봉관 한국영화 흥행 순위에 따르면, 영화 <화평의 길>은 8위를 기록하며 8만 명의 관객이 입장하였다. 영화는 11월 17일에서 12월 7일까지 21일 동안 아세아극장에서 상영되었다.¹⁷⁾ 이제 영화 <화평의 길>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보자.



15) 정종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종교 영화』 (서울: 범우사, 2007), pp.213-214.
 16) 같은 책, p.569, 강증산에 대하여 “오백년 이씨 조선의 난마와도 같은 정치사회와 국운을 바로 잡아 보려고 교화에 힘쓰면서 (중략) 유·불·선의 정신혁명으로 시운에 따르는 민족적 시련을 이기고 나면 우리 민족이 세계를 영도하는 문화민족이 된다고 민중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17) 영화진흥공사, 『198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p.140;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pp. 237-240. 1984년은 외화의 범람에 의하여 국내영화계의 불황이 지속되었지만 관객이 5만 명이 넘는 10편의 흥행영화가 있었다. 1위는 <고래사냥>, 2위는 <무릎과 무릎 사이>, 3위는 <애마부인 2>, 4위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위는 <수령에서 건진 내 딸>, 6위는 <마보선언>, 7위는 <속, 사랑하는 사람아>, 9위는 <지금 이 대로가 좋아>, 10위는 <뚝부기 새벽에 날다>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종교영화 가운데에서는 <화평의 길>이 1위를 한 셈이다.

1. 증산에서 정산으로의 도통계승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¹⁸⁾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가운데 처음(15분)과 마지막(15분)에 등장하는 조정산에 먼저 주목해보자. 영화는 정산이 증산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역행한다. 1909년 4월 28일에 만주 봉천지역으로 이주하는 어린 정산이 등장한다. 경남 함안군에서 태어난 정산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부¹⁹⁾의 유언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 만주로 간다. 조부는 대구의 헌병대 폭탄투척사건의 배후인물로 일경의 추궁을 받는다. 그는 손자 정산에게 한일합방에 반대하다가 뜻을 못 이룬 민영환(1861-1905)과 조병세(1827-1905)의 자결소식을 듣자 분을 못 이겨 토혈 서거(逝去)한다.²⁰⁾

만주 이주 후 부친도 조부의 구국정신을 따라 독립운동에 참여한다. 정산에게 공부를 독려하고 모친을 맡긴 채 집을 떠나지만 경찰에 체포된다. 어린 정산은 증산을 한 번도 직접 만나 본 적은 없다. 1917년 어느 날 공부에 정진하다가 특별한 계시(special revelation)를 체험하면서 21자의 주문을 받는다. 그는 나라와 백성을 구할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가 “이 글을 공부하라.”는 신인의 계시를 받는다.²¹⁾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

18) 『전경』, 교법 1장 5절.

19) 홍문관정자(정9품)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사는 지식인으로 등장한다. 일경들은 조부의 집을 수색한 후 불온한 서적을 압수한다. 고향에 내려 온 이유를 묻자 “임금을 옹계 보필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못하는 관속”에 대한 회의로 관직을 파하였다고 응답한다.

20)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후로 64명의 관료들이 자결하였다.

21) 『전경』, 교운 2장 7절, “도주께서 어느 날 공부실에서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글씨 쓴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구세제민(救世濟民)하리라」고 말씀하시기에 도주께서 예(禮)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은 보이지 않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산은 이 주문과 함께 “세상을 구하고 만백성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라는 신적인 사명(divine mission)을 받는다. 그에게 내면의 소리처럼 “이제 부친이 자유를 얻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계시가 계속 전해진다. 그는 1917년 4월에 “조선으로 돌아가서 (전복) 태인(泰仁)에서 나를 찾으라.”는 계시를 받고 귀국한다.²²⁾

조모와 부친을 모시고 귀국한 정산은 정읍 모악산 대원사에 들러 증산이 득도한 곳, 즉 “상제님의 체온이” 느껴지는 방을 제자들과 살펴본다. 제자들은 정산을 ‘도주(道主)님’이라 부른다. 이곳은 1901년에 증산이 49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정진하여 후천개벽(後天開闢)과 후천선경(後天仙境)의 도래를 깨달은 거룩한 곳이다. 이어 영화는 1919년 정월 보름에 정산이 증산의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을 찾아가 증산의 유품을 받는 결정적 사건을 소개한다. 누이동생은 그를 1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뜻밖의 대답을 한다.²³⁾ 이처럼 영화는 정산이 증산의 종통(宗統)을 합법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받은 유품을 펼쳐서 그 안의 상자를 열자 증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정산의 이야기 → 증산의 이야기 → 정산의 이야기

영화는 증산의 이야기를 화천(化天)으로 마무리한 후에, 다시 정산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정산은 계곡에서 증산의 가르침을 도인들에게 전

22) 『전경』, 교운 2장 8절, “그 후에 도주께서 공부실을 정결히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받들도 밤낮으로 그 주문을 송독하였도다. 그러던 어느 날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명을 받으시니 이 때 도주께서 이국땅 만주 봉천에 계셨도다.”

23) 같은 책, 교운 2장 13절, “도주께서 다음 해 정월 보름에 이 치복을 앞세우고 정읍 마동(馬洞) 김 기부의 집에 이르러 대사모님과 상제의 누이동생 선돌부인과 따님 순임(舜任)을 만나셨도다. 선돌부인은 특히 반겨 맞아들이면서 ‘상제께서 재세 시에 늘 올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뢰니라. 부인은 봉서(封書)를 도주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 하며 안심하는도다. 도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마을로 오셨도다.” 영화는 유품의 전달이 종통의 합법적 계승의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다. 증산의 누이동생은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품을 찾고자 했지만 내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히는 강직한 지도자로 그려진다. 그의 도통계승이 부각되는 장면이다.

“증산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비록 너희에게서 떠나 서측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에게는 빠짐없이 찾을 것이니라. 성·경·신이 지극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지금은 물론 앞으로는 인존의 시대이니라. 옛날에는 상극이 지배하였으나 이제는 상생의 시대이니라. 죄를 조심하고 착짓는 일을 삼가하라. 그리하면 뒤에 천장이 있을 것이니 믿고 잘 닦으라고 말씀하셨느니라.”²⁴⁾

이러한 정신을 받들어 정산은 전북 정읍에 1925년 무극도(無極道)를 세웠다.²⁵⁾ 무극도는 증산을 ‘상제’로 섬기는 종교이지만 1941년에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재산을 일제에 몰수당하게 된다.²⁶⁾ 해방 이후에 1948년에 부산 보수동에 태극도를 세웠다. 이미 1947년에 태극도에 가입한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이 1958년에 총도전으로 임명되었다.²⁷⁾ 이후 공동체의 내분을 피하여 우당은 1968년에 부산을 떠났다. 안양 수리산에서 49일간 공부를 행하고 그를 추종하던 태극도인들이 서울 중곡동에 도장을 건립하였다. 그 후 1969년에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로 교명을 바꾸었다.²⁸⁾ 박우당이 조정산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조정산을 옥황상제로 신앙한다는 점에서 대

24) 같은 책, 교법 2장 13절; 교운 1장 58절.

25)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최길성, 장상언 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pp.271-277. 증산은 1919년 천인교 설립, 1921년 무극도 설립, 1925년 무극대도 개칭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오류를 시정하려는 연구가 있다. 박상규, 「대순진리회 조직의 특성」, 『한국 종교교단의 조직』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13)을 참조하라.

26) 1941년 종교단체 해산령이 아닌 1936년에 유사종교해산령에 의하여 해산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최준식, 『한국종교, 문화로 읽는다 3 - 증산교, 원불교』 (서울: 사계절, 2004), p.174.

27) 『진경』, 교운 2장 64-66절. 정산은 도진 박한경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

28) 이찬수, 『종교로 세계읽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138-141. 증산교는 증산이 사망한 후에 다양한 갈래로 갈라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자 차경석이 세운 보천교(普天敎)가 유력한 교단이었지만 해방 후 등장한 대순진리회와 증산도가 현재에는 가장 대표적인 증산교 교단으로 성장했다.

순진리회와 무극도 및 태극도 사이에 교리와 의례의 차원에서 강한 유대와 연속성이 존재한다.²⁹⁾

영화에서 정산은 1925년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성전으로서 무극도장을 건립하였고 강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한다.³⁰⁾ 정산이 공부와 포교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흠모하는 신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41년 신사년 일제의 종교단체해산령에 의하여 정산이 민족정신의 도장을 총독부에 빼앗기는 장면을 극적으로 시각화한다. 이처럼 영화는 당시 정산의 강력한 지도력과 종도들의 포덕과 제민을 위한 아낌 없는 헌신에 주목한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산은 이제 “그대들은 포덕하고 제민하였도다. 각자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처자를 공양하되 다시 찾을 날을 기다리라”³¹⁾라고 하고 종도들은 울부짖으며 굳건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지식, 말도, 글도 이름마저도 빼앗겼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마저도 빼앗겨야 하옵니까?
도주님,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도주님, 우리의 성전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옵니다.”
“도주님, 이 성전이 마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여기를 떠나 어디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옵니까?”
“도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되고 맙니다요.”

29)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종교교단연구II』(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7), pp.194-195.

30) 『전경』, 교운 2장 32절, 이 때 중지 및 신조와 목적이 정해졌다.

중지(宗旨) -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신조(信條) - 사강령(四綱領): 안심, 안신, 경천, 수도

삼요체(三要諦): 성, 경, 신

목적(目的) - 무자기 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세계개벽

31) 『전경』, 교운 2장 43절. 정산은 1909년 기유년부터 1941년 신사년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에 힘을 다하시니 신도의 무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니라.”

이에 대하여 정산은 “이 어두움은 결코 길지 않으리라. 우리는 이 도장을 잃을지라도 마음속에 믿음마저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목숨을 초개까지 여기더니 남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수도를 해왔지 않은가. 새로 찾아드는 아침에 너희는 더욱 크게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늘 함께 있느니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만남을 마친다. 이후 수년이 지나 정산의 예언대로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은 1945년에 광복을 맞는다. 이 시기까지 이용직은 장애가 있지만 정산을 옆에서 정성껏 모시던 중에 고대하던 조선의 독립을 목격한다.³²⁾

그렇다면 강증산의 탄생과 활동 그리고 죽음은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증산은 1871년 신미년 9월 19일에 강세한다.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곧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요청을 받고 괴롭지만 어쩔 수없이 지상에 내려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³³⁾ “구천에 계시던 상제께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³⁴⁾에 이르셨다고 설명한다. 이 “미륵은 그가 중생을 권도하는 소임에 따라서 36자 금불 속에 한 신인을 30년 동안 모시었다”³⁵⁾는 것이다. 영화는 아래의 구절을 이미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 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 금불(六丈金佛)이 화위 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化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統九萬里)³⁶⁾

32) 같은 책, 교운 2장 45절, “도주[정산 조철제]께서 하루는 [이용직을] 보고 ‘그대의 불구가 나의 공사를 돕는도다.’고 말씀하시고 웃으셨도다.”

33) 같은 책, 공사 1장 9절,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

34) 같은 책, 예시 1절.

35) 같은 책, 교운 1장 9절.

36) 같은 책, 예시 14절.

이처럼 고난과 절망의 어두움에 빠져 있는 민중과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전지전능한 신이 지상에 내려 온 것이다. 따라서 영화는 어두움 가운데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으로 증산의 탄생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강증산은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비폭력을 선택하고, 외적인 변혁보다는 내적인 성찰과 반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눈이 내릴 시기에 동학군이 꽤한다.”고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후 전국팔도를 주유하는 증산은 자연과 문화를 통하여 다양한 체험과 공부를 한다. 영화는 각지역의 탈춤과 강강술래 및 농악대를 교차시키면서 바다와 산을 여행하는 증산의 모습을 보여준다. 팔도를 주유한 후 증산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시루봉 위에 앉아서 머리를 풀고 참선한다.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처럼 증산이 명상하는 장면은 영화에서 극적으로 묘사되고 진법주(眞法呪)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사시토왕 응감지위, 관성제군 응감지위, 칠성대제 음감지위
우직사자 내대지위, 좌직사자 내대지위, 명부사자 내대지위³⁷⁾

영화에서 증산은 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리며 진법주를 송독한다. 이어 증산은 전주 모악산 대원사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49일 동안 불음불식하며 공부에 정진한다. 대원사의 주지 금곡대사는 증산의 안위를 걱정하지만 오룡허풍에 천지대도를 열게 된다.³⁸⁾ 공부를 마치고 봉인된 문을 열고 증산은 미음을 청한다. 본택에서 새로운 옷

37) 四時土王 應鑑之位 關聖帝君 應鑑之位 七星大帝 應鑑之位 右直使者 來待之位 左直使者 來待之位 冥府使者 來待之位.

38) 박용철,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종통의 친부성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68 (2007), pp.88-107;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pp.409-452.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에 따르면, 증산은 대원사 공부를 통하여 이전에 없었던 깨달음을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초월적 상제로서 체득하고 있는 가르침을 세상에 전한 것이다.

을 제공하지만 가사를 돌보지 않는 증산에 불만을 표현한 부인 정씨의 불경한 말실수로 인하여 새로운 옷을 다시 보내게 된다.³⁹⁾ 이처럼 인류와 우주의 개혁을 위한 천지공사에 전념하였으므로 집안의 가사를 돌볼 수 없었던 증산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으로서 인류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⁴⁰⁾

2. 내우외환과 화평의 메시지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⁴¹⁾

영화의 시작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대적 상황 속에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조선인이 겪었던 정치적 혼란과 외압 속에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영화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1980년대 중반의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현실적 고통을 극복할만한 대안적 세계관과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⁴²⁾

정산의 만주이주를 소개한 후에 스크린 위에는 휘날리는 태극기가 클로즈업되면서 만국평화회의에서 대한독립을 주창하다가 자결한 이준(1859-1907) 열사와 이등방문을 만주 하얼빈 역에서 처단한 안중근

39) 『전경』, 행록 2장 12절, “주지승 금곡이 곧 상제의 본택에 사람을 보내 의복을 가져오게 하였더니 부인 정씨는 의복을 내어놓으며 불경한 말을 하니라. 이것은 평소 상제께서 가사를 돌보시지 않았던 불만에서 나온 소치였도다. 금곡이 그 의복을 상제께 올리니 가라사대 「이 옷에 요망스러운 계집의 방정이 붙었으니 속히 버리라. 하시고 입지 않으셨도다. 이 일을 금곡이 다시 사람을 시켜 부인에게 전하니 그제야 비로소 부인 정씨가 뉘우치고 어쩔할 바를 모르고 다시 새 옷을 올렸도다.”

40) 그리스도교의 ‘구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대순진리회에서는 ‘구제창생’과 ‘광구천하’가 있다.

41) 『전경』, 공사 3장 4절, 증산은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가르쳤다.

42) 로버트 존스톤, 『영화와 영성』, 전의우 역 (서울: IVP, 2003), pp.184-186.

(1879-1910)의사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지나간다. 이처럼 영화는 한 일합방을 주도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한 축으로 소개하고 또 다른 축으로는 나라 안에서 일본과 서양의 침입을 당하는 상황 속에 진행된 동학란과 정치적 혼란을 다룬다. 결국 쇠잔한 정권의 부패와 일제의 폭력 앞에 좌절한 백성들은 고국을 떠나 만주로 이동한다.

그리고 한일병합에 대한 백성들의 상반된 의견이 영화 속에 교차된다. “양반의 세도가 없어졌고 부역이 없어져 살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과 “그래도 내 나라가 있어야지”라는 부정적 주장이 엇갈린다.⁴³⁾ 어린이들이 일본군의 침입을 빗대어 부르던 동요가 나온다.

새야 새야 과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개화와 함께 “동방의 은자국 조선”에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정치적 간섭을 시도하고 조정이 나약해지자 일본의 횡포가 더욱 심해진다. 민중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고 민중은 조직적으로 봉기를 전국에서 일으킨다. 외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정부의 관료가 부패하여 백성들의 저항의식이 높아간다. 대원군과 민씨의 갈등은 정치에 대한 민심의 불신을 더욱 악화시킨다.

영화는 동학군의 봉기가 처음에는 관군보다 우세하여 성공하지만 일본군이 합세하면서 점차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증산의 삶에 대하여 15분 정도를 동학란의 형성과 패망에 할애한다. 사회문제에 대하여 농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만큼 충분한 정치적 명분은 있지만 깃발과 횃불을 앞세운 저항만으로는 총과 칼로 무장한 정규군을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동학군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약탈을 일삼는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도 군령을 내려 “함부로 인명을 살생해서는 안 된다. 양민들의 재산을 손대어서도 안 된

43) 일본 사람은 조선에서 누에고치를 거두어 외국에 팔아 장사하는 “약삭빠른” 민족으로 묘사된다.

다.”는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영화에서 증산은 동학운동의 방법과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처음 이긴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병까지 오게 돼. 조선 팔도를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 그는 정부의 혼란이 가중되면 오히려 일본군이 참여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눈이 내릴 시기에” 동학군의 패망을 언급하므로 “관군의 앞잡이”로까지 오해를 받지만 증산은 물러서지 않는 강직한 신념을 지닌 선견지명이 있는 예언자로 그려진다.⁴⁴⁾ 그는 뜻은 좋지만 동학의 의거가 때를 만나지 못해 오히려 백성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동학군의 교조신 원운동과 민중해방운동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구국제민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조선의 망국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산은 외국의 간섭을 경고하지만 초기 승전에 취해 있는 동학군의 수장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영화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인정회담을 삽입한다. 1894년에 신정회대감은 갑오농민운동이 발발하였을 때 김종한대감과 함께 행한 노인정회담에서 일본의 강압적인 내정개혁에 반대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만 실패하는 장면이다. 결국 증산이 예견한대로 청국군의 조선 진입을 빌미로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내정간섭을 하면서 동학군을 제압하게 된다. 19세기말에 민중에게 한 때 희망을 주었던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새로운 정신적 구심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는 동학혁명의 실패에 따른 영적인 허탈감과 불안감이 종교적 대안운동으로서 대순사상의 등장을 촉진시켰다는 설명을 한다. 정치참여보다는 내적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44) 『전경』, 행록 1장 23절, “전봉준이 학정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증진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다. 이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종략)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고하셨느니라. 과연 이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 동학군은 1894년 11월 우금치전투에서 패하여 후퇴하였고 12월에 전봉준이 체포되어 이듬해 3월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시선을 엿보는 것이다.⁴⁵⁾

민중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른 증산은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도술을 부리는 ‘사기꾼’과 ‘나쁜 사람’으로 오인되어 고부 경무청에 갇힌다.⁴⁶⁾ 특히 그의 제자들 가운데 동학군에 참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의병의 지도자로 간주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정치적인 행동을 넘어서 “하늘과 땅 속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광인’으로 보였다. 그는 선천의 상극질서 안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자가 많아 하늘에 그 원한이 가득 차”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역사 속에 축적된 “원한으로 순리의 마디가 엉켜서 세상이 어지러워”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그 신명들의 원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해원사상을 제시한 것이다.⁴⁷⁾

1907년 불법집회로 체포된 증산과 그의 제자들은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 극심한 고문을 당한다. 이처럼 고부화약을 당하는 과정에서 증산과 일경 사이에 진행된 취조내용은 영화를 통하여 대순사상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영화의 제목인 “화평”이 대사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장면이 등장한다.

일경1: 관리를 몇 사람이나 죽였어? 일본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였나 말이다.

45) 김남석, 『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연극과 인간, 2006), p.285. “영화는 물리적인 시선이면서 동시에 해석적인 입장이다. (중략) 내면의 결여를 채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구경하기도 하고, 인류 문명과 폭력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결과도, 엿본다는 그 자체의 매혹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엿보고 그 엿봄을 통해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이다.”

46) 『전경』, 행록 3장 53-55절, 면장과 이장의 고발로 증산은 1907년 정미년에 체포되었다.

47)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2009), p.159. “해원상생은 쌓였던 원을 풀고 상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여질 만큼 대순진리의 교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종지이다.”

『전경』, 행록 3장 58절, 경무관의 질문에 대하여 증산은 “나는 의병이 아니라 천하를 도모하는 중이로다.”고 답변했으며 “사람마다 도량이 부족하므로 천하를 도모치 못하노니 만일 용재대략이 있으면 어찌 가만히 있으랴. 나는 실로 천하를 도모하여 창생을 건지려 하노라.”고 설명하였다.

증 산: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천하를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들이다.⁴⁸⁾

일경1: 허허허허허. 천화를 화평케 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무슨 모의를 했나? 의병모의를 했지?

증 산: 의병을 일으키려면 깊숙한 산중에 모일 것이 아닌가.

일경1: 거짓말 마라. 바른데로 말하지 못할까.

증 산: 의병이란 것이 단지 5백년 이씨 왕가를 보존키 위해 일본에게 항쟁하는 것을 이름이나?
나는 천하를 도모하고 못 창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일경1: 허허허허허. 미친놈 같은 소리마라.

증 산: 내가 내가 지나친 말로 할 때에는 신인(神人)이라고 하더니 참말로 할 때에는 날 광인이라고 하느냐.⁴⁹⁾ 광인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니라.

일경2: 그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나?

증 산: 상도를 잃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해원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선경을 열어 증생을 널리 건지려고 함이다.⁵⁰⁾

증산을 조롱하며 가혹하게 고문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천천히 화면에 잡히면서 증산의 독백이 흐르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백] 너희는 모든 것에 절반 밖에 못보고 있어. 너희가 네 마음을 보았느냐? 네 몸뚱이는 다만 네 신명을 담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너를 움직이는 자신의 절반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까닭에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다. 가려한 인생이로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그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어. 깊이 깨닫고 마음을 맑게 가져야 할 것이다.

48) 『전경』, 행록 4장 27절.

49) 같은 책, 행록 3장 34절, “상제께서 김 형렬이 「많은 사람이 상제를 광인이라 하나이다」고 고하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거짓으로 행세한 지난날에 세상 사람이 나를 신인이라 하더니 참으로 행하는 오늘날에는 도리어 광인이라 이르노라」고 말씀하셨도다.”

50) 같은 책, 공사 1장 2절.

증산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비틀거리지 마라.” 고난 가운데 제자들을 독려하며 안심시킨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에 어찌 장생신명이 응하겠느냐? 너희는 곧 풀려날 것이니 마음을 놓으라.”고 위로하니 말한 대로 옥에서 제자들은 풀려난다. 그는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역을 피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앙을 고스란히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옥에 갇힌 제자들 가운데 공신이 고문으로 위독해지자, 제자들에게 인곽(人郭)을 쌓을 것을 명한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그에게 고드름을 녹인 물을 입 안에 넣어주어 소생시킨다.⁵¹⁾ 증산의 말대로 제자들이 다수 풀려나지만 김형렬과 김자현 두 제자는 스승인 증산의 옆에 남아 그를 지킨다.⁵²⁾ 경무청은 결국 증산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풀어준다. 이처럼 증산은 천지공사를 통하여 천하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민란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로 오인되었다.⁵³⁾

영화에서는 간음현장에서 용서 받은 과부가 다시 등장하여 투옥된 증산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그녀는 ‘신인’(神人)이라고 경무관을 설득하고 새 의관을 정성스럽게 마련하여 그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혼란한 조선말의 상황 속에서 증산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의 강한 견제를 받지만 제자들을 중심으로 민중들에게는 “만백성과 세상을 구하려는 신인”으로 여겨진다. 제자들은 “죄를 조심하고 척 짓지 말라”는 가르침을 배우지만 경무청은 증산을 민중을 선동하는 정치적 인물로 판단하여 그의 기세를 꺾어 일본식민주의자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증산은 역사가 고난과 폭력으로 얼룩질 때 고부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마음의 변혁과 비폭력에 기초한 해원사상을 전한다.

51) 같은 책, 행록 3장 59절. 영화와는 달리 공신을 소생시킨 음료가 “소변 찌꺼기”로 등장한다.

52) 같은 책, 행록 3장 63-66절. 경무관은 증산을 “광인으로 취급하여 옥중에” 남겼다.

53) 같은 책, 행록 3장 53절.

3. 마음의 평화와 비폭력의 실천

“너희는 항상 평화를 주장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밖에서는 난리가 일어나리라.”⁵⁴⁾

강증산은 1894년과 1897년에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제자들에게 천지공사의 근본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⁵⁵⁾ 즉 외적인 폭력이 아닌 내적인 마음에 문제해결의 단초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늘이 비를 적게 내리면 만방에 원한을 끼치게 되고 땅도 우로가 고르지 못하면 만물의 원한을 받게 되고, 사람이 덕을 옹게 행하지 않으면 만사에 원한을 맺게 되나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덕이 다 마음에 있느니라.”⁵⁶⁾

따라서 증산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동학운동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시운도 좋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탐관오리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전주를 치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학군의 적극적인 활동에 마음이 흔들린다. 증산은 동학군의 뜻을 지지하면서도 그 방식과 판단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는 동학군의 패망을 예언하므로 동학군의 위협을 받기도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죽이려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

54) 같은 책, 교법 1장 53절.

55) 같은 책, 행록 1장 20절, “상제께서 갑오년에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과 이웃의 서동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심이 비범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높았다. 글방은 처남의 집이고 급구군 초치면 내주동에 있었다.”; 같은 책, 행록 2장 1절, “상제께서 정유년에 다시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과 형렬의 아들 찬문과 그 이웃 서동들을 가르치셨다. 이 때에 유불선음양참위를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얼마 동안 글방을 계속하시다가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주유의 길을 떠나셨다.”

56) 같은 책, 행록 3장 44절, “천용우로지박(天用雨露之薄) 즉필유만방지원(則必有萬方之怨) 지용수토지박(地用水土之薄) 즉필유만물지원(則必有萬物之怨) 인용덕화지박(人用德化之薄) 즉필유만사지원(則必有萬事之怨) 천용지용인용(天用地用人) 통제어심(統在於心)”

지 않는다.

증산의 제자들 가운데 김형렬과 안필성은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학운동에 참여한다. 동학군이 관군에 크게 패한 뒤에도 증산은 형렬과 필성을 챙기며 동굴에 피신시켜 그들을 구한다. 이러한 제자들의 동학참여가 이후에 증산이 경무청에 붙잡히는 주된 이유가 된다. 증산은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에 대하여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고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원한의 얽힘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세계의 변화와 미래의 국운을 예언한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인데 주인이 자기 집을 들쭉서 놓으면 어떡하겠는가. 모든 일에는 시운이 있느니라. 지금은 동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조선에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데 이럴 때 자중지란을 일으키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느니라.”

“이제 동양의 형세가 그 존망의 다급함이 백척간두에 있으므로, 서양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내가 서양세력을 물리치니라.”⁵⁷⁾

“우리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갈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동안은 천하통일지기를 일본이 맡게 될 것이야.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하지만 왜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 어질 인자이다. 만일 그들에게 어질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왜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어질 인자는 조선백성들에게 붙여줄 것이니, 잘 지켜야할 것이다.”⁵⁸⁾

“그리고 장차 청일 사이에 싸움이 두 번 있을 것이니 첫 번째는 청국이 패해야 다시 일어나는 싸움은 십 년이 가고 그 때 일본이 쫓겨 들어갈 것이다.”⁵⁹⁾

57) 같은 책, 공사 1장 13절.

58) 같은 책, 공사 2장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장차 너희들은 평한 사람이 될 것이요. 저들은 일만 할뿐이다. 그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말대접이라도 후(덕)하게 하라.”⁶⁰⁾

“왜는 쫓겨 돌아가려니와 뜻하지 않은 호병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 호병은 피를 흘릴 뿐 천하에 환을 남기리라.”⁶¹⁾

영화에서 표현된 증산의 예언은 『전경』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순진리회 도인들에게도 삶의 지침을 제공한다.⁶²⁾ 『전경』은 영화의 세계관을 구축하여 종교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킨다. 특히 영화는 『전경』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도인을 진정한 도인으로 만들고 관객에게는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을 전달한다.⁶³⁾ 동서양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서양보다는 동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 대순사상은 한중일 가운데 특히 한국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으므로 민족종교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다. 영화에서 증산은 박장근의 집에서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에 빗대어 조선은 윤리적으로도 선진국이 될 것임을 예언한다.

“너희들은 회문산 오선위기혈이란 그 이치를 아느냐?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느니라. 패를 가르고서 두 신선은 훈수를 하고 나머지 한 신선은 집주인으로서, 바둑이 끝나면 네 신선이 돌아가므로 바둑판과 돌은 주인의 것이 아니겠느냐?”⁶⁴⁾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 때문에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

59) 같은 책, 예시 26절.

60) 같은 책, 공사 2장 4절.

61) 같은 책, 예시 26절, “호병들이 들어오리라. 그러나 한강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 이 구절은 증산이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을 정확히 예언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62) Paul Flesher & Robert Torry, *Film & Relig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pp.11-12. <화평의 길>에는 『전경』의 내용이 왜곡됨 없이 반영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을 공감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하였다는 장점은 있지만 창조적 상상력의 측면에선 약점일 수 있다.

63) Wilfred Cantwell Smith, *What is Scripture?: A Comparative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pp.18-19.

64) 『전경』, 공사 2장 3절; 예시 28절.

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자 함이나라! 조선은 장차 문명국이 되고, 윤리가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상등국 중 상등국이 되리라!”⁶⁵⁾

이러한 상등국으로의 발전은 개혁을 통한 해원(解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증산의 해원사상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증산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원한으로 설명하는데 그 기원을 요의 아들 단주의 원한에서 찾는다. 단주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남조선국에 지기를 모아 이상세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⁶⁶⁾ 증산은 율불선 저서를 폭넓게 공부를 한 후에 1897년부터 3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며 공부한다. 주유하는 과정에서 『정역』(正易)을 집필한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을 만난다. 일부는 천문, 역학, 한시에 능통한 연담(蓮潭) 이운규의 문하생으로 서전(書傳)과 주역(周易)을 연구한 인물로서 어느 날 하늘나라를 꿈꾼다. 영화에서 선녀들이 부채춤을 추고 오리들이 물 위에서 노니는 신비로운 장소로 표현된다. 강증산이 옥좌에 앉아있는 가운데 일부가 먹물을 떨어뜨린 곳에 불이 붙어 꿈에서 깬다. 이어 일부는 증산을 만나 ‘선생’으로 부르고 ‘요운’(曜雲)이라 써주며 “부디 크신 심안으로 이 나라를 살피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⁶⁷⁾

영화에서 증산은 3년 주유와 대원사 49일 공부를 마친 후 자신의 지상에서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관심(ultimate concern)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으며 해원사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다.

65) 같은 책, 예시 29절,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66) 고남식, 「해원으로 본 강증산 전승의 <남조선국>과 『홍길동전』의 <울도국>」, 『문학치료연구』 12 (2009), pp.144-147.

67) 『전경』, 행록 2장 2절, “[김일부]는 당시 영가무도의 교법을 문도에게 펼치고 있던 중 어느 날 일부가 꿈을 꾸었도다.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일부에게 강사옥과 함께 옥경에 오르라는 천존의 명하심을 전달하는도다. 그는 사자를 따라 사옥과 함께 옥경에 올라가니라. 사자는 높이 솟은 주루 금궐 요운전에 그들을 안내하고 천존을 배알하게 하는도다. 천존이 상제께 광구천하의 뜻을 상찬하고 극진히 우대하는도다. 일부는 이 꿈을 꾸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동연히 상제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도다. 일부는 상제께 요운(曜雲)이란 호를 드리고 공경하였도다.”

“내가 나서서 천하의 일을 맡고자 함이 아니라 천지신명들이 모여서 내가 아니면 천지의 상도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므로 내가 맡게 되었느니라.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고치면 안 된다.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니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상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해원상생의 법리로 만고의 원한을 풀고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져 내리라.”⁶⁸⁾

이처럼 영화는 “해원상생의 법리로 만고의 원한을 풀고”라는 표현으로 『전경』의 내용을 표현한다.⁶⁹⁾ 증산 전승의 해원에 주목한 고남식은 “원한 서사가 소외, 억압, 죽음, 재앙 등으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기 서사의 진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과 함께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원한의 정서를 풀어 나가려는 해원 설화들의 작품 서사는 치유되어야 할 정서를 풀어 해소시켜주는 서사로서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⁷⁰⁾

III. <화평의 길>에 대한 종교학적 평가: 구원의 문제

영화 <화평의 길>은 대순진리회의 종통을 강조하며 내우외환의 시

68) 같은 책, 공사 1장 2절. 전경에서 증산은 천지공사의 독특성을 보다 강조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든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얻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중략)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69) 같은 책, 공사 1장 9절. 전경은 해원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에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중략)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70) 고남식, 『해원설화에 대한 문학적·치료적 접근』, 『문학적·치료연구』 6 (2007), pp.200-201.

대적 상황 속에서 해원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제 종교현상학의 관점에서 영화가 보여주는 분류체계와 경계설정의 재구성과 민중의 지도자로서의 강증산의 이미지 그리고 치유와 대속의 상징으로서 증산의 활동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한국사회에는 종교적 공백의 시대가 없었다.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에 따르면 유불선 삼교와 ‘서학’이나 ‘서도’라 불리는 그리스도교가 조우하는 가운데, 경직된 단합의 구조는 증산이 행한 9년간 천지공사(天地公事)에 의하여 열림의 구조로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그 변화의 시기에 증산이 서 있었고 그는 민중들의 삶이 피폐됨을 알고 그들의 편에 서서 병에 걸린 세계를 진단하고 치유하기 위한 만국의원(萬國醫院)을 세운다.⁷¹⁾ 우리는 종교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영화적 선택과 민중과의 동행 및 치유와 대속의 상징으로서의 증산의 이미지에 주목할 것이다.

해원사상			
	열림	민중	치유·대속
증산	천지공사		정산
	단합	권력층	병·죄
내우외환			

1. 종교들을 초월한 도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 가지 주의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⁷²⁾

영화 <화평의 길>은 종교학적 관점에서 『전경』의 내용을 선별적으

71) 『전경』, 공사 3장 35절.

72) 같은 책, 교법 3장 38절.

로 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교와 불교 등 주류 종교들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드러낼 만한 이웃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최소화되었거나 생략되었다는 점이다.⁷³⁾ 나아가 종교영화로서 대순진리회의 신념체계를 대중에게 알리는 교화와 포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대원종(大願鐘)과 영대(靈臺)의 모습이 교차하며 아래와 같은 내레이션으로 막을 내린다.

“크나큰 원을 담았다고 해서 이 종은 대원종(大願鐘)이다. 우리는 이 소리가 우주의 참 뜻을 깨우치는 소리로, 온 지구촌 위에 퍼져나가길 빈다. 등불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어두워져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구천상제께서 천생들이 걸 어갈 수 있도록 이미 조화하여 놓으신 큰 길이 있다. 이것은 세계의 대도이다. 그 길은 하늘을 향한 길이 아니라 땅에 마련된 길이다. 신명들과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지상의 길이다. 마음 먹으면 나타나는 길이다.”⁷⁴⁾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되게 하라.”⁷⁵⁾

여주본부도장의 숭도문(崇道門)을 지나 위치해 있는 종고각의 2층에는 대원종이 달려 있고 그 1층에는 뇌화고(雷化鼓)가 있다. 시간마

73) 같은 책, 교운 1장 6절, “... 보경이 (유불선 세 글자 가운데) 불자를 짚자 상제께서 기쁜 빛을 나타내시고 유자를 짚은 종도에게 유는 부유(腐儒)라고 일러주셨도다.” 증산은 유교의 병폐를 비판한 것이다.

74) 현재 여주본부도장의 대원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다. “거룩한 진리와 무상무변의 덕화가 온 누리에 울려 퍼져 우주 삼라만상에 미치리로다. 기원하옵나니 모든 창생을 본진(本眞)의 인간으로 환원(還元)케 하사 전 인류세계에 안락과 평화를 이룩하옵소서.”

75) 대순진리회,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p.43-44. 도전 박우당은 다섯 가지 훈회를 실천하여 생활화하여 사회의 귀감이 될 것을 당부했다.

다 올리는 대원종은 치성이나 강식 때만 올리는 뇌화고와 함께 음양 합덕을 상징한다. 특히 영대(靈臺)는 대순진리회 세계관에서 가장 신성한 성전으로서 우주의 주인과 천지신명을 모신 ‘우주의 중심’(center of the world)이다. 종교적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서 신과 소통하고 원 초적 기억을 재현한다.⁷⁶⁾

이러한 통합적 신관을 중심으로 대순사상은 선천과 후천의 구분과 개벽론을 강화해 나간다. 그러므로 영화는 바로 증산 상제의 천지공사가 이루어진 1901년 신축년부터 1909년 기유년까지 9년간의 역사와 그 의미의 탐색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증산이 고통 받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서 “오늘날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자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에게 선천(先天)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이고 후천(後天)은 천지공사를 통해 맞이하는 “미래의 역사”이다.⁷⁷⁾ 물론 천도교의 최수운과 원불교의 소태산도 후천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지만 대순신앙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창조적 절대권능자로서 강증산이 신인(神人)임을 자인한 점이다.⁷⁸⁾ 이 점에서 증산의 대순사상은 다양한 종교사상의 영향을 받고 다시 창조적 변혁을 시도한 민족종교로서의 세계관을 구축한다.⁷⁹⁾

1984년에 종교영화, 그것도 신종교(new religious movement)와 관련된 영화의 원활한 상영과 보급을 위하여 <화평의 길>의 제작진은

76) 15진주에는 ①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강성상제, ②조성옥황상제, ③서가여래, ④명부시왕, ⑤오악산왕, ⑥사해용왕, ⑦사시도왕, ⑧관성제군, ⑨칠성대제, ⑩직선조, ⑪외선조, ⑫칠성사자, ⑬우직사자, ⑭좌직사자, ⑮명부사자가 있다.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by Willard Trask (London: HBIP, 1959), pp.36-43.

77)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pp.274-276. 이경원 교수는 철학, 의학, 종교학에서의 선·후천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소개하고 대순신앙의 구천상제와 천지공사 및 선후천 교역의 변화기제를 설명한다.

78) 같은 책, pp.277-278.

79) 『전경』, 교운 1장 10절, “상제께서 교운을 펼치신 후 때때로 종도들에게 옛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강태공, 석가모니, 관운장, 이마두가 끼었도다.”; 교운 1장 65절,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을 선도의 종장으로, 진묵을 불교의 종장으로, 주희암을 유교의 종장으로, 이마두를 서도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노라.”

다각도로 고심하였을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임권택 감독의 영화 <비구니>의 제작이 중단된 사례처럼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성 ‘종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주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와 불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충돌의 소지가 될 만한 소재와 주제는 가급적 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작과정의 선택과 변화는 주류 사회문화에 원활하게 스며들어 소통하기 위한 종교간 관계에서의 방편적 조치이다.

영화는 제작과정에서 이웃종교의 시각에서 민감한 주제를 생략하거나 관련 소재를 삭제하여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단합’의 태도에서 ‘열림’의 태도로 나아간다. 증산이 그리스도교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냐 혹은 소극적이냐는 상반된 견해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은 크기만 정작 영화에서는 그리스도교와 불교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영화에서 대순사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증산에게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믿는 야소교(耶蘇敎)이다. 그는 1906년 병오년에 예수교당에 가서 “모든 의식과 교의를 문건”한다.⁸⁰⁾ 그리고 “서도(西道)의 종장(宗長)”⁸¹⁾으로서 마테오 리치(Mateo Ricci, 1552-1610) 즉 이마두(利瑪竇)의 사상과 활동에 주목한다. 증산에 따르면 “서양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데 “유교의 폐습으로” 실패하지만 동서의 신명들이 서로 교통하는 데에는 기여한다. 나아가 이마두가 사망한 뒤에도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서양으로 데려가 다시 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천국의 모형”을 따서 문운(文運)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⁸²⁾ 나아가 증산은 종교의 다름을 “문명의 기초”로 본다.

80) 같은 책, 행록 3장 33절. 증산은 야소교에 대하여 “족히 취할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81)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82) 같은 책, 교운 1장 9절.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자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였도다.”⁸³⁾

이처럼 증산은 세계종교에 대한 해박한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으로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한다.⁸⁴⁾ 그러나 이러한 다종교적인 영향은 물론 그 어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과의 만남도 영화에서는 표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화는 증산이 동학을 포함하여 기존의 사상을 모방하기보다는 독특한 사상을 창도한 것임을 강조한다.⁸⁵⁾ 이러한 독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나 불자 관객을 자극시킬 만한 증산의 신약성서 소각사건⁸⁶⁾이나 예수교도와의 갈등⁸⁷⁾ 및 증산의 미륵선언⁸⁸⁾은 영화에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제국주의자에게 박해를 받은 민족종교로서의 면모가 강조된다.

영화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종교의 다양성처럼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천지공사를 통해 후천시대에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

83) 같은 책, 교법 3장 23절.

84)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행록 2장 1절. 증산은 “[1897년 정유년]에 유훈선 음양 참위를 통독하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함에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85) 같은 책, 공사 1장 2절,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궁극적 실재의 제문제』 (서울: 문사철, 2010), p.413. 천지공사는 “이미 있는 세계에 대한 단순한 깨달음의 전달과정”이 아닌 실질적인 현실 개조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6) 같은 책, 행록 1장 27절, “[기독교의 신약전서를] 빌려다 상제께 드렸더니 상제께서 그것을 불사르셨도다.” 물론 오동정의 김경안은 빌려간 신약전서를 요구하자 붓장수에게서 찾아 돌려준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순진리회에서 글을 태우는 것은 신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서(焚書)에 대한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 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87) 같은 책, 교법 2장 28절. 예수교 신자가 술에 취하여 김형렬을 붙들고 폭독하게 능욕하였다.

88) 같은 책, 행록 2장 16절,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 미륵전 옥장금신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되 나는 입에 물었노라.”

예언된다.⁸⁹⁾ 이러한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강조하는 대순사상의 세계관은 폐쇄된 경계와 범주 및 영역을 허물고 화해와 공존 및 상생을 위한 해원의 열린 시대, 바로 지상선경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배제된 인간에게 평등과 화해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것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의 사람이라.”⁹⁰⁾

영화에 등장하는 증산은 해원상생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하여 왜곡된 관계를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배제된 약자들,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여자, 천민, 빈자, 노인의 편에 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치며 일상에 실천하는 성자(聖者)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는 소설에서도 나타나듯이 영화에서도 핵심적인 내러티브로 등장한다.⁹¹⁾ 분노한 민중들이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붙잡아 나무에 묶어 놓는다. 이 여자는 마을 이장의 며느리로서 청상과부가 된 후에 머슴과 통정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⁹²⁾ 영화에서 증산은 제자에게 이러한 처벌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명령한다. “형털아, 저 비인도적인 처사를 그만두도록 일러라. 가서 이장에게 말하라. 그대로 될 것이다. 가서 저들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두 사람은 감사하는데, 용서를 받은 여자는 영화에서 증산

89) 같은 책, 교법 3장 40절.

90) 같은 책, 교법 1장 24절.

91) 소설과 영화에서는 크게 부각시키는 간음한 여자의 소재는 『전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92) 같은 책, 교법 1장 46절,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 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도다. 충효열(忠孝烈) 국지대강연(國之大綱然) 국망어중(國亡於忠) 가망어효(家亡於孝) 신망어열(身亡於烈)”

을 함모하여 따르는 제자로 묘사된다. 증산은 마을 사람들이 두 남녀를 ‘간음부(姦淫夫) 간음부(姦淫婦)’라고 평가한 것과는 달리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로 칭하고 그 글씨를 불로 태운다.⁹³⁾ 그리고 이러한 선언이 해원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로서 모든 악습은 없어지리라. 해원공사니라. 서로가 원을 푼다. 사람과 사람, 신명과 신명, 나라와 나라, 남자와 여자, 남존여비의 벽을 무너뜨리고 동등해 질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척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⁹⁴⁾

영화와는 달리 『전경』에서는 증산이 제자들과 음양도수를 마친 후에 후천 5만년 첫 공사를 행하는 가운데 청상과부의 개가문제를 공우의 입을 통하여 처리한다.

증산(상제): “깊이 생각하여 증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공우: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

증산(상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치결하였노라.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 년을 가리라.”⁹⁵⁾

이 대화가 소설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분리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용서를 받은 여자(김해숙 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위기에 처한 증산을 돕는 보은의 이야기로 표현된다.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93) 같은 책, 교법 2장 57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

94) 같은 책, 교법 1장 68절, “후천에서는 그 뒤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

95) 같은 책, 공사 2장 17절.

강증산에 대한 주변의 반감이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치닫자 용서 받은 과부는 공개적으로 증산을 지지한다고 못매를 맞는다. “어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과부에게 증산은 “나의 일, 부인의 일이 다르니 나를 따를 생각은 하지 마시오. 여자도 남자들과 평등하게 살아갈 날이 올 것이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요. 용기를 잃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시오.”라고 위로하고 충고한다. 이처럼 남녀유별의 유교사회에서 여권신장을 위한 증산의 홍보는 파격적인 사회변혁가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⁹⁶⁾

둘째로, 유교의 계급사회에서 증산은 동학처럼 무력을 동원한 계급 타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에게 물을 가져다주는 제자의 종에게 고마움을 존댓말로 전하자 주변의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불편해 한다.⁹⁷⁾ 증산은 “자네의 종이 지 나의 종은 아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적서의 명분, 반상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해원의 시대이다. 양반의 인습을 버리고 천한 사람을 우대해야 좋은 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⁹⁸⁾고 선언한다.

셋째로, 증산은 한말 위기에 처한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돕는다. 1904년 8월에 송병준은 일진회를 설립하여 일본의 조선병합을 돕는다. 그 과정에서 개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양복을 입고 상투를 자른다.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우니 일본의 속국이 되어

96) 그렇다고 해서 증산이 가정의 성적 율리도덕을 무시했던 것은 아니다. 같은 책, 교법 1장 51절,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어긋침이니 죄가 워낙 크므로 내가 관여치 않노라.”

97) 같은 책, 교법 1장 10절,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댓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 하고 청하나.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으니라, 일러 주셨도다.”

98) 같은 책, 교법 1장 9절, “지금음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야 한다.”는 주장까지 편다. 일진회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재물을 빼앗을 것을 예견하고 증산은 자신의 전답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전주부에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는 일진회가 자기의 돈으로 일을 하도록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⁹⁹⁾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일진회에게 상투를 잘린 제자 공우에게 “마음을 쓸 뿐이니 머리가 중요하지 않다.”¹⁰⁰⁾고 위로하며 가르친다. 더 나아가 강압적으로 증산의 상투를 자르려던 일진회의 시도에 대하여 “개화되는 시대에 본을 보여 상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한 줌 베어 준다.¹⁰¹⁾

넷째로, 증산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르친다. 영화에서는 장익모의 집에서 일어난 일화를 소개한다. 제자 익모는 일하는 노모를 돕지 않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등에 태우고 놀아주고 있다. 증산은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 된 도리로서 부모를 더 잘 공경하라.”¹⁰²⁾고 가르친다. 『전경』에는 모친의 삼베를 되찾은 일¹⁰³⁾, 부친의 빚을 탕감 받은 일¹⁰⁴⁾과 증산이 정

99) 같은 책, 교훈 1장 15절, “[김형렬]은 원평에서 그것이 일진회의 모임이고 보국안 민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대회 장소는 충남 강경임을 탐지하고 상제께 되돌아가서 사실을 아뢰었도다. 이 사실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네들로 하여금 앞으로 갑오와 같은 약탈의 민폐를 없애고 저희들 각자가 가지의 재산을 쓰게 하리라. 내가 먼저 모범을 지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본택의 살림살이와 약간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전주부 중에 가셔서 지나가는 길인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로부터 일진회원들은 약탈하지 않고 자기 재산으로 행동하니라. 이 일로써 전주부민들은 상제께서 하시는 일에 감복하면서 공경심을 높였도다.”

100) 같은 책, 교법 2장 10절, “[공우가] 금구를 지나던 어느 날 일진회의 전 동지 십여 명을 만나 그들의 조소를 받고 머리를 깎여 두어 달 동안 바깥출입을 금하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중이었도다. 돌연히 상제께서 찾아오셔서 한동안 출입하지 않는 까닭을 물으시니 공우가 사실 그대로 아뢰니라.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하리오.」 이 말씀을 하시고 공우를 데리시고 구릿골로 떠나셨도다.”

101) 같은 책, 행록 3장 9절, “그 때 정남기와 그의 처남이 일진회원으로서 상제의 가 입을 강권하고 군중과 합세하여 상제께 달려들어 상투를 가위로 깎으려고 하되 베어도 베어지지 않으니 상제께서 친히 한 줌을 베어 주시며 「이것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풀어주노라」고 말씀하셨도다.”

102) 같은 책, 교법 1장 41절, “상제께서 장 익모(張益模)의 집에 가셨을 때 그가 자기 어린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교훈하시기를 「복은 위로부터 내려 내려오는 것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도의로서 부모를 공양하라」 하셨도다.”

남기의 아우를 부모에 대한 불경한 태도로 꾸짖은 일¹⁰⁵⁾ 등 부모공경에 관련된 다른 일화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증산의 활동은 ‘선녀직금의 이치’에 따라서 “모든 곳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새로운 질서구축의 과정이다.¹⁰⁶⁾ 실 한 올만 엉켜도 베 찢는 것은 실패이기 때문에 증산은 계급차별과 성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한다. 증산의 예언처럼 동학군의 봉기는 실패로 끝이 나고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조선에서 위세를 과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가르침은 공맹사상에 어긋나는 듯이 보였고 글방을 운영하던 ‘강훈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 “동네를 떠나라.”는 요구까지 듣게 된다. 그의 평등사상은 당시 반상계급과 남녀유별을 강조하던 유교사회에서 수용되기에는 어려웠다.

3. 병과 죄에서의 자유와 치유

“나의 말이 곧 약이라.”¹⁰⁷⁾

증산은 1907년 정미년부터 부자 백남신의 도움으로 전주 동곡에 약방을 차려 병자들을 치유한다.¹⁰⁸⁾ 그곳에서 24가지의 약재와 오행의 기운으로 제생(濟生) 활동에 힘쓴다.¹⁰⁹⁾ 그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병만을 치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인류와 세계의 질병

103) 같은 책, 행록 1장 14절.

104) 같은 책, 행록 1장 17절.

105) 같은 책, 교법 3장 40절,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그 때에 너는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건디기 어려웠으리라」 하시며 크게 꾸짖어 가라사대 「네가 부친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했을 때 부모의 가슴은 어떠하였겠느냐.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나라고 일러 주셨도다.”

106) 같은 책, 행록 3장 15절, “선녀직금혈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같은 책, 행록 3장 21절, 공사 3장 6절을 참조하라.

107) 같은 책, 교법 2장 1절,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108) 같은 책, 공사 2장 7-10절.

109) 같은 책, 예시 72절, “스물네 가지 약종만을 잘 쓰면 만국의원(萬國醫員)이 되리라.”

을 고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영화에서 증산은 천하와 우주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과 치료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좀 더 큰 약을 만들어야 된다. 천하가 다 병 들었느니라. 여기는 인근의 병자를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병, 이 나라, 천지의 병까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임금의 은공을 모르고 부모의 은공을 모르고 스승 거룩하심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 세상에 충효제가 끊어져 천하가 다 병 들었느니라.¹¹⁰⁾ 천지의 대운을 깨닫고 나라의 고마움을 알며 부모와 스승의 은공을 알고 상생의 대의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의 병폐를 몰아내리라.”

증산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지만 작은 병과는 달리 큰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2년 동안 치유헌동을 한 후에 화천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쉬우니라. 문턱 밖이 바로 저승이니라. 난 죽고 사는 것을 임의대로 할 것이니라.”¹¹¹⁾

“나의 모습을 잘 익혀두어라. 훗날에 내가 다시 세상에 나올 때에는 눈이 부시어 나를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예로부터 신선이라는 것을 말로서만 들어왔으나 실제로 본 사람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오직 너희들만이 그 신선을 볼 것이다. 내가 장차 열 석자의 몸으로 오리라.”¹¹²⁾

“아직도 땅의 기운이 통일되지 못함으로써 땅 위에 사는 인류는 반목투쟁을 일삼고 있고 이것을 없애려면 서로의 원한을 풀음으로써 하늘의 신명을 좋아하고 하늘과 땅의 짜임새를 다

110)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111) 같은 책, 행록 5장 32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쉬우니라. 몸에 있는 정기만 흠으면 죽고 다시 합하면 사나니라.”

112) 같은 책, 행록 5장 25절,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이두라.”

시 조정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이룩되려면 천지는 개벽되고 지상낙원이 세워질 것이다.”

죽음이 임박한 증산은 누이동생 선돌부인에게 봉서(封書)를 맡기며 “10년 후 정월 보름날에 손님이 찾아올 것이야. 그 분에게 이 물건을 전해주게. (중략) 명심해라. 그 사람은 을미생이니라.”고 유언을 남긴다.¹¹³⁾ 병이 든 세계에서 증산은 “모든 병을 앓아서 대속(代贖)하고 천하 창생들로 하여금 강령을 얻게” 하기 위하여 황달과 호열자 등의 질병을 차례로 앓는다. 모든 사람의 병을 대속하기 위하여 스승이 자처한 고통을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슬픔과 원통함에 잠긴다. 화천을 앞둔 그는 제자들에게 굳은 믿음을 갖고 따를 것을 가르친다.

“슬프고 또 슬프도다. 이제 온 누리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모두 다 건지기가 어려우니 이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내가 없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머지 않아 내가 출타할 터이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믿지 않는 자는 내가 영원히 잊어버리리라.”¹¹⁴⁾

“어느 누구도 감히 동행치 못할 곳이야.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도록 조화로써 창생을 다스리리라. 백성은 탐욕의 번뇌가 없을 것이니, 하늘이 낮아져 오르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십방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의 수화풍의 삼재가 없어져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을 세우리라.”¹¹⁵⁾

화천을 앞둔 증산은 제자 갑철에게 대나무를 잘라오라고 하여 열마디 중 한 마디를 끊고 참대마디가 몇인지 그리고 하늘엔 별이 몇이

113) 같은 책, 교운 2장 13절.

114) 같은 책, 행록 5장 19절. 화천 예고에 대하여 김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라고 응답한다.

115) 같은 책, 예시 81절.

나 보이는지를 묻고 ‘대두목’과 수교자 아홉 명을 세운다.¹¹⁶⁾ 『전경』에 따르면 증산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어 도통하는 방법을 전수하였다. 따라서 영화는 상제 강증산에서 다시 도주(道主) 조정산 그리고 도전(都典) 박우당으로 이어지는 대순진리회의 종통계보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증산의 치유와 대속의 신비한 지식은 시대와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종통의 전수과정에서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파들이 등장하였다.¹¹⁷⁾

IV. 결론: 영화를 통한 해원사상 함양교육

요컨대 영화 <화평의 길>은 해원사상을 함양하는 종교교양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영화와 종교의 만남은 창조적 교육과 해석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영화는 종교의 신념체계와 의례 및 공동체의 차원을 균형 있게 담고 신자와 비신자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초월하여 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 너머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화는 종교의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포덕의 방편이 되며 심지어 영화 자체가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텍스트로서 『전경』에 드러난 증산과 정산의 모습보다 영화는 관객에게 보다 친숙한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해석된 증산과 정산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116) 같은 책, 교운 1장 38절. 대나무의 마디와 하늘의 별에 따라서 아홉 수교자를 세웠다.

117) 김홍철, 「증산교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 IV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pp.84-118. 김홍철 교수는 차경석의 보천교, 조철제의 태극도, 박한경의 대순진리회 등 증산 화천 후 등장한 20개 주요 증산교 교파를 분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100여개의 교파가 등장하였는데, 특히 강증산→조철제→박한경으로 이어지는 종맥을 형성한 대순진리회는 최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는 ‘양대(兩大)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종교영화가 주로 제작되어 왔다.¹¹⁸⁾ 따라서 영화 <화평의 길>은 흥행실패 속에 에로영화가 범람하던 1980년대 한국종교영화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신(新)군부시대에 민주화운동의 저항과는 또 다른 길, 바로 “화평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목적을 위해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해원사상을 토대로 마음의 평화와 지상 선경에 이르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제공하였다. 영화 <화평의 길>이 개봉된 지도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2013년 4회에 걸쳐 진행된 대순진리회 종단사진전에서 영화 <화평의 길>의 콘텐츠가 기억과 교육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¹¹⁹⁾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사회에 보다 적합한, 증산과 대순사상, 특히 해원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와 문화콘텐츠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앞으로 제작될 후속 작품들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종교 관련 문화콘텐츠(cultural contents)의 제작이 널리 유행하는 가운데 신종교에 관련된 영화들은 주류 종교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흥행을 위하여 신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때로는 비판적인 태도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²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순진리회의 입장을 편견 없이 공감적이며 객관적으로 소개하면서도 『전경』의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영화적 상상력에 대한 해석이 요청된다.¹²¹⁾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

118) 김원태, 「스크린」 속에 나타난 종교 영화, 정종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종교 영화』, pp.315-316.

119) 4차 종단역사사진전은 2013년 10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열렸으며 영화 <화평의 길>의 주요 장면과 『전경』의 내용을 비교하고 역사적 배경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20) Paul Thomas, “New Religious Movements”, John Lyden,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Film* (London: Routledge, 2009), pp.216-217. 과거에는 신종교활동을 세뇌(brainwashing)이론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구도자(seeker)이론으로 대체되고 있다.

사회에 진입하였고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종교, 인종, 젠더, 복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도인들과 대순사상 연구자들의 지혜로운 답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화에 표현된 증산의 이미지는 계몽주의적 남성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근엄하고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지닌 정적인 모습의 인물로서의 증산의 모습만이 크게 부각되었다. 『전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웃는’ 증산의 모습은 과격적이고 해학적이며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돈키호테적인’ 도인(道人)의 면모를 지닌다. 그러므로 관객의 시선에서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도록 증산, 정산, 우당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의 제작뿐만 아니라 대순사상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영화나 콘텐츠의 제작과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화의 제작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화평의 길>을 비롯하여 기존에 갖고 있는 대순사상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활용방안과 현장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¹²²⁾

셋째, 영화 <화평의 길>에 나타나는 증산과 정산에 대한 해석은 우당의 지도 아래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내부자(insider)의 관점에서 제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순종학의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도인들을 넘어서 관객의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원활한 소통과 대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증산이 남긴 예언과 기적 및 치유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대의 문제를 고뇌하는 증산과 정산의 세계관, 기회가 된다면 우당의 관계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화적 상상력의 시도가 요구된다. 19세기의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비폭력적인 마음의 변혁을 주장했지만 사회 변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대순사상의 사회적 책임(social re

121) <화평의 길> 이후에도 40분짜리 전주 MBC창사기념으로 제작된 다크가 있고 여주도장에서 제작한 10분짜리 동영상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속영화가 만들어 지지는 않고 있다.

122) 박영옥, 「문화콘텐츠산업-영화」, 인문콘텐츠학회 편, 『문화콘텐츠입문』 (서울: 북코리아, 2006), pp.85-88.

sponsibility)에 대한 고민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순사상은 앞으로 ‘종교의 학문화’(academization of religion) 과정에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영화에서도 신인(神人)으로서 증산의 강세와 시루산 정상에서의 공부 및 바로 이어지는 대원사에서 49일 공부 등은 증산의 행적들 가운데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그만큼 영화 제작이 쉽지 않지만 당시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적 잘 표현되었다. 문제는 스크린 위에 종교적 신념이 시각화되면서 그것에 대한 진위를 가늠하려는 가치판단의 기제가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비와 침묵 그리고 실천의 여백을 인정하는 태도가 제작자와 관객 및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종교 관련 교양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교분리(政教分離)와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문맹’(illiteracy)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소수 종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공공연하게 미디어와 공공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화평의 길>과 같은 영화를 활용한 종교에 대한 교육과 토론 및 연구는 영화를 통해 종교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교양의 안목을 넓혀줄 것이다.

【참고문헌】

『전경』

『대순지침』

강소원, 「1980년대 한국영화」, 한국영상자료원 편, 『한국영화사공부, 1980-1997』,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2005.

고남식, 「해원설화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6, 2007.

_____, 「해원으로 본 강증산 전승의 <남조선국>과 『홍길동전』의 <을도국>」, 『문학치료연구』 12, 2009.

고병철, 「대순진리회의 전개와 특징」, 『한국종교교단연구』 I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07.

김남식, 『영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연극과 인간, 2006.

김 탁, 『증산 강증산』,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김홍철, 「증산교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 IV,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2.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2009.

로버트 존스톤, 『영화와 영성』, 전의우 역, 서울: IVP, 2003.

박상규, 「대순진리회 조직의 특성」, 『한국 종교교단의 조직』,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종교연구소, 2013.

박영옥, 「문화콘텐츠산업-영화」, 인문콘텐츠학회 편, 『문화콘텐츠입문』, 서울: 북코리아, 2006.

영화진흥공사, 『198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서울: 영화진흥공사, 1985.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작품전집, 1971-1985』, 서울: 영화진흥공사, 1986.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궁극적 실재의 제문제』, 서울: 문사철, 2010.

_____,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이찬수, 『종교로 세계읽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정중화, 『자료로 보는 세계의 종교 영화』, 서울: 범우사, 2007.

- 정진홍,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 종교현상학의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최길성, 장상언 역,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최준식, 『한국종교 문화로 읽는다 3-증산교, 원불교』, 서울: 사계절, 2004.
-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서울: 문학사상사, 2000.
- 박용철,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증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68, 2007.
- 신상미, 「영화 “평화의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대순회보』 140, 2013.
-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by Willard Trask, London: HBJP, 1959.
- Paul Flesher & Robert Torry, *Film & Relig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 George A.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 John C. Lyden, *Film as Religion: Myths, Morals, and Ritual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 Diane Moore,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S. Brent Plate, *Religion and Film: Cinema and the Re-Creation of the World*, London: Wallflower, 2008.
- Stephen Prothero, *Religious Literacy*, New York: HarperOne, 2007.
- Ninian Smart, *Dimensions of the Sacred: An Anatomy of the World's Beliefs*, London: HarperCollinsPublishers, 1996.
- Ninian Smart,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in its Plurality”, Frank Whaling, ed., *Theory and Method in Religious Studies*, Berlin: Mouton de Gruyter, 1995.

Wilfred Cantwell Smith, *What is Scripture?: A Comparative Approa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Paul Thomas, “New Religious Movements”, John Lyden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Film*, London: Routledge, 2009.

Nicholas Wolterstorff, *Art in Action*, Grand Rapids: WEPC, 1980.

▪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Jeungsan's Haewon(解冤)
Thought in Film**
- Focusing on *The Way of Peace* (1984) -

Shin Ahn

Pai Chai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artistic expression of religious thought in terms of the uniqueness of different images and crea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art is complicated but popular in modern society. Film becomes the icon of modern culture to enhance the knowledge of religious traditions. Among many Korean religious films, Kang Daejin's work, *The Way of Peace* (1984) contains the life and thought of Kang Jeungsan(1871-1909), the highest god of Daesoonjinrihoe.

First, the film, *The Way of Peace*, pays attention to the legitimacy of succession from Kang Jeungsan to Cho Jeongsan(1895-1958). Korea was beset with trouble both at home and abroad. China, Japan, Russia, and the US had the colonial desire to conquer the lands of Korea and to explore natural resources. Though the people of Eastern Learning(東學) protested government and Japanese colonialists, Jeungsan applied the principle of non-violence to the world. In order to save all the living beings of the world, he

reordered the universe and renewed the harmonic relationship of human beings and their spirit.

Second, The Way of Peace proposed the soteriology of peace and change to audience regardless of seekers(道人) or not. Jeung-san transformed the closed society to the open society, changed divided religions to the transcendent truth(道). He empowered the marginalized people such as women, the lowly, the elderly, and the sick, who were oppressed in the Confucian society. And he redeemed the people from the disease by healing all diseases and correcting disorders.

In conclusion, The Way of Peace is a good resource of religious education by which we can overcome the religious illiteracy. The knowledge of new religious movements and Daesoonjinrihoe is necessary for us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human nature. In the near future, the new images of Jeung-san should be created through multi-media and cultural contents for the new generation.

Key words : Religious Film, The Way of Peace(1984), Jeung-san, Haewon(resolution of grievance), Religious Education, Epoche, Empathy

-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7일~18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7월 27일